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22)

1. 한국의 지소미아(GISOMIA) 파기 결정 관련

□ [한국 정부 발표]¹⁾

- 청와대는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일본 정부 동향]

- (외무성) 고노(河野) 외무성 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파기한 이후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이) 매우 유감이며, 한국 정부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함.²⁾
- o 또한 외무성 장관은 22일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항의하였음.³⁾
- (방위성) 방위성 간부들은 “믿을 수 없으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 “뜻밖의 대응으로써,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파기 결정의 이유로 수출관리의 문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 등의 반응을 보임.⁴⁾

2.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관련

□ [일본 정부 입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할 것

1)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노력에 日호응 없어”(종합) 『연합뉴스』 (2019. 8. 22).
2) 外務省, 「大韓民国による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の終了の決定について」, 홈페이지 :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1_000873.html
(검색일: 2019. 8. 22).
3) 「G S O M I A破棄 河野外相 「見誤った対応」 韓国大使呼び抗議」 『NHK NEWS WEB』 (2019. 8. 22).
4) 「韓国 G S O M I A破棄を決定 日韓対立が安全保障分野にも波及」 『NHK NEWS WEB』 (2019. 8. 22).

이라고 발표함(8.21).⁵⁾

- 일본 경제산업성 세코(世耕) 장관은 검사 강화 조치와 관련,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수출관리상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무적 조치” 라고 하면서 “이 조치에 관해 다른 분야로 파급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비판함.⁶⁾
- 또한 와타나베(渡辺) 부총청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를 두고 기자회견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8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전사고에 대한 편견 및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발언함.⁷⁾

5)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2019. 8. 21).

6) 「韓国の放射性物質検査強化「好ましくない」と批判 世耕経産相」 『NHK NEWS WEB』 (2019. 8. 22).

7) 각주 6과 출처 동일